# 인터넷·텔레뱅킹 이체 한도 줄고 까다로워진다

## 은행권, 정보유출 피해 예방 5년만에 개편

### 비밀번호 발급 등 절차 복잡… 고객들 불만

이제 하루에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이체하려면 은행창구에 직접 가거나 '일회용 비밀번호(OPT)생성기'를 사야한다. 날로 진화하는 금융사기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막으려는 조치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인터넷과 스마트폰, 텔레뱅킹 송금이 까다로워지고 송금 한도도 줄어든다. 2009년 이후 약 5년 만의 대대적인 개편이다.

먼저 외환은행은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개정, 지난 5일부터 기존의 3등급 체계의 이체한도를 2등급 체계로 변경하고 이체한도를 대폭 줄였다. 3등급 체계는 보안 강도에 따라 1등급(OTP 생성기 이용), 2등급(보안카드+문자메시지 통지), 3등급(보안카드)의 이체한도를 달리 두는 제도다. 기존의 2등급은 한 번에 5000만원, 하루에 2억5000만원을 보낼 수 있었지만 이날부턴 보안카드로 송금할 경우 한 번에 1000만원, 하루에 1000만원만 보낼 수 있다. 다만, 1등급인 OTP 이용 거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한 번에 1억원, 하루에 5억원까지 송금할 수 있다.

앞서 기업은행과 광주은행이 지난달 18일부터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송금 시스템을 개편했으며, 국민은행(3월21일)과 우리은행(3월28일)도 곧 개편한다. 신한은행은 상반기 중 모든 고객을 상대로 개편된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아직 개편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뱅킹 이용 한도 변경(단위:원)

| 변경전 | 변경후 | |
|---|---|---|
| 1회 1000만 /1일 5000만 | 국민은행 | 1000만/1000만 |
| | 우리은행 | 500만/1000만 |
| | 광주은행 | 500만/1000만 |
| | 신한은행 | 500만/1000만 |
| | 하나은행 | 1000만/1000만 |
| | 외환은행 | 1000만/1000만 |
| | 기업은행 | 1000만/1000만 |

■텔레뱅킹 이용 한도 변경(단위:원)

| 변경전 | 변경후 | |
|---|---|---|
| 1회 1000만 /1일 5000만 | 국민은행 | 500만/500만 |
| | 우리은행 | 500만/500만 |
| | 광주은행 | 500만/1000만 |
| | 신한은행 | 500만/500만 |
| | 하나은행 | 1000만/1000만 |
| | 외환은행 | 1000만/1000만 |
| | 기업은행 | 1000만/1000만 |

※보안카드 사용시 기준, 모바일 뱅킹 포함

은행마다 OTP를 이용한 1등급 거래만 1회 1억원, 1일 5억원으로 동일할 뿐 2등급 거래는 이체 한도가 조금씩 다르다.

신한·우리은행은 2등급 송금 한도가 1회 500만원, 1일 1000만원이다. 국민·기업·외환은행은 1회 1000만원, 1일 1000만원이다.

3등급 체계를 유지하는 농협은행은 2등급(보안카드+문자메시지)이 1회 5000만원에 1일 2억5000만원, 3등급(보안카드)이 1회 1000만원에 1일 5000만원이다.

하나은행은 3등급 체계를 유지하되 지난해 12월부터 2~3등급의 송금 한도를 줄였다. 2등급은 1회 5000만원에 1일 1억원, 3등급은 1회 1000만원에 1일 1000만원이다.

인터넷·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이용 빈도가 줄어든 텔레뱅킹도 비슷한 방식으로 보안등급이 개편되고 송금 한도가 축소된다.

텔레뱅킹은 OTP를 이용하는 1등급이 1회 5000만원에 1일 2억5000만원으로 모든 은행이 동일하며, 개편 이후에도 한도가 유지된다. 2등급은 은행마다 다르다.

은행들은 수천만원 이상의 거액 송금이 필요할 경우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사기 피해 가능성이 희박한 OTP를 이용하도록 권고했다.

OTP는 토큰형은 5000원, 카드형은 1만~1만4000원의 발급 비용이 든다. 다만, 우수 고객(VIP)은 지점장 전결로 비용이 면제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지도에 따른 것이지만, 이체 한도가 확 줄어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농어촌 비싼 LPG 쓴다

## 전남 지자체 최대 20% 차

### 함평·영광 4만8000원

전남 일선 시군에서 '서민의 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이 최대 20%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소비자 판매가격은 20kg 기준 최하 4만원에서 최대 4만8000원까지 8000원(20%)의 격차가 났다.

가장 싼 곳은 나주지역 일부 판매업소로 4만원, 가장 비싼 곳은 함평과 영광지역 4만8000원이다. 보통 4만3000원대에 판매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작지 않다. 특히 나주시는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읍면동에 따라 4만원에서 4만7000원까지 최대 7000원의 차이가 났다.

영광은 4만7000~4만8000원, 함평은 4만6000~4만8000원으로 도내 지자체 중 비싼 축에 속했다. 여수, 순천, 완도, 진도, 화순, 장흥, 강진 등은 4만3000에서 4만6000원을 받고 있다.

도내 평균 공급가격은 4만5090원이다. 평균 공급가격보다 비싼 지자체는 영광(4만7500원), 함평(4만7000원), 구례, 고흥, 보성(4만6500원), 영암, 장성, 신안(4만6000원) 등이다.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목포, 순천, 여수 등 시지역이나 대도시 주변 지역은 농어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

농어촌 지역은 판매업소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공급가격이 비싸더라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LPG 가격 산정 시 충전비(연료) 2만9182원(20kg기준)에 배달비, 운영비, 이윤 등을 더하고 있다.

전남지역에서는 LPG 충전소 145곳과 판매업소 394곳이 운영중이다. 도내에서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구는 50만5000여가구로 추산된다. 전체 80만8682가구 중 62%를 차지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LPG 판매가격은 완전 자율제인 만큼 지역에 따라 가격 차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배달지연 등 주민불편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자·격·증

## 구직자 중요한 스펙

### 알바천국 설문 조사

구직자들이 취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펙은 '자격증'이고, 시간을 지나치게 많이 투자해야 것으로 여기는 스펙은 '토익'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www.alba.co.kr)이 10~50대 구직자 294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2.6%가 취업에 필요한 8가지 스펙 가운데 '자격증'을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선택했다.

'학벌'(24.5%), '대외활동'(11.5%), '인턴'(11.2%), '토익'(8.1%)이 그 뒤를 이었다. '학점'(6.8%), '봉사활동'(4.0%), '어학연수'(1.3%)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인식됐다. 특히 50대 구직자는 절반 이상인 55.9%가 자격증을 가장 필수적인 항목으로 꼽았다. 20대는 '자격증'(28.6%)과 '학벌'(25.5%)의 중요도를 비슷한 수준으로 봤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갤럭시탭 프로 출시** 삼성전자가 휴대성은 높이고 가격은 낮춘 태블릿PC 갤럭시탭 프로를 6일 국내 시장에 출시했다.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전자제품전시회 CES에서 처음 공개된 이 제품은 두께가 7.2㎜로 아이패드 미니 레티나보다 0.3㎜ 얇고, 무게는 331g으로 아이패드 미니 레티나와 같다. 〈삼성전자 제공〉

# 이통3사 45일씩 영업정지

### 미래부, 내주부터 시행 방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과도한 보조금 지급 경쟁을 중단하지 않은 이동통신 3사가 내주부터 45일씩 영업정지(사업정지)에 들어간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6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방안을 7일 발표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의견 조율 문제 등으로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오는 13일께부터 사업자당 45일씩의 영업정지를 시행할 방침이다. 단, 한 사업자씩 돌아가면서 영업정지에 들어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두 사업자씩 짝을 지어 동시에 영업정지를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한 사업자가 영업정지에 들어가면 나머지 두 사업자끼리 보조금 경쟁을 벌이게 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식의 영업정지 처분을 해달라고 미래부에 건의했다. 이런 방식에 대해 이통 3사도 특별한 이의제기는 하지 않았다고 미래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이통 3사는 영업정지 기간을 22일·23일 등으로 나눠서 두 번에 걸쳐 영업정지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영업정지는 보조금 경쟁을 중단하라는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제재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정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통신사업자는 3개월(90일)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기본 사업정지 일수의 50%인 45일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미래부는 이통사가 보조금 경쟁 중단 시정명령을 고의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지만, 영업정지 기간에 중소 제조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망, 이용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최소한의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업정지 기간에 신규가입 접수 업무뿐 아니라 기기변경 업무까지 금지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LH 나주혁신도시 B9블록 상가 공급

### 17일부터 입찰 접수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상가분양 공고를 통해 광주·전남혁신도시(빛가람도시) B9블록 단지 내 상가(8호)를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B9블록은 국지도 49호선으로 호남고속도로, 장성IC진입, 광주공항, 무안국제공항 및 광주송정역진입 등 편리한 교통망으로 선호도가 높은 단지이며 단지 세대수 대비 상가규모도 적정해 상가분양 문의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상황이다.

17일부터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을 통해 입찰분양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 참여시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보유해야 한다. 1인이 2호 이상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낙찰자는 분양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로 결정된다.

신청자격은 제한 없다. 문의(1600-1004).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